

2011년

**복수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 (11개)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간질이다 (동사)	간지럽히다 (동사)
남우세스럽다 (형용사)	남사스럽다 (형용사)
목물 (명사)	등물 (명사)
만날 (부사)	맨날 (부사)
뭇자리 (명사)	못자리 (명사)
복사뼈 (명사)	복숭아뼈 (명사)
세간 (명사)	세간살이 (명사)
쌈싸래하다 (형용사)	쌈싸름하다 (형용사)
고운대 (명사)	토란대 (명사)
허접스레기 (명사)	허접스레기 (명사)
토담 (명사)	흙담 (명사)

**별도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 (25개)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기에 (어미)	~길래 (어미)
괴발개발 (명사): 고양이, 개	개발새발 (명사): 개, 새
날개 (명사)	나래 (명사): 문학적
냄새 (명사)	내음 (명사): 문학적
눈초리 (명사)	눈꼬리 (명사)
떨어뜨리다 (동사)	떨구다 (동사)
뜰 (명사)	뜨락 (명사)
먹을거리 (명사)	먹거리 (명사)
메우다 (동사)	메꾸다 (동사)
손자 (명사)	손주 (명사)
어수룩하다 (형용사)	어리숙하다 (형용사)
연방 (부사)	연신 (부사)
횡허게 (부사)	횡하니 (부사)
거리적거리다 (동사)	걸리적거리다 (동사)
끼적거리다 (동사)	꼬적거리다 (동사)
두루뭉술하다 (형용사)	두리뭉실하다 (형용사)
맹송맹송 (부사)	맹송맹송, 맹송맹송 (부사)
바동바동 (부사)	바동바동 (부사)
새치름하다 (형용사)	새초롬하다 (형용사)
아웅다웅 (부사)	아웅다웅 (부사)
야멸치다 (형용사)	야멸차다 (형용사)
오순도순 (부사)	오손도손 (부사)
찌뿌듯하다 (형용사)	찌뿌둥하다 (형용사)
치근거리다 (동사)	추근거리다 (동사)

**복수 표기** :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 (3개)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태견	택견
품세	품새
자장면	짜장면

**복수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 (11개)

간지럽히다(동사): 옆구리를 **간지럽히다**.  
 남사스럽다(형용사): 소문이 **남사스러워** 바깥출입을 어찌할꼬?  
 등물(명사): 우물가에서 **등물**하면서 더위를 식혔다.  
 맨날(부사): **맨날** 그 모양이다.  
 못자리(명사): **못자리**를 잘 쓰다.  
 복숭아뼈(명사): 발목을 접질려서 **복숭아뼈**가 아프다.  
 세간살이(명사):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 → **세간살이**를 갖추다.  
 쌈싸름하다(형용사): **쌈싸름한** 인삼주.  
 토란대(명사): 토란의 줄기 / 주로 국거리로 쓴다.  
 허접스레기(명사): 좋은 것이 빠지고 난 뒤에 남은 허름한 물건  
 → 사방에 **허접스레기**가 널려 있다.  
 흙담(명사): 흙으로 쌓아 만든 담

**별도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 (25개)

-길래(어미): 배가 **고프길래** 라면을 끓여 먹었다.  
 개발새발(명사): **개발새발** 글씨를 쓰다.  
 나래(명사): 젊은이여, 희망의 **나래**를 펴라!  
 내음(명사): 고향의 **내음**.  
 눈초리(명사): 매서운 **눈초리**.  
 눈꼬리(명사): **눈꼬리**가 처지다.  
 떨구다(동사): 동전을 바닥에 **떨구었다**.  
 뜨락(명사): (-의 **뜨락**) 앞말이 가리키는 것이 존재하거나 깃들어 있는 추상적 공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행복의 **뜨락**.  
 먹거리(명사): 전통 **먹거리**.  
 메꾸다(동사): 지루한 시간을 하루같이 **메꾸었다**.  
 손자(명사):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손주(명사):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손자+손녀=손주

어수룩하다(형용사): 순박함, 순진함  
 → 그는 **어수룩해서** 아무에게나 돈을 잘 빌려준다.  
 어리숙하다(형용사): 어리석음  
 → 그는 **어리숙한** 폰수 연기를 잘 소화해 냈다.

연신(부사): 잇따라 자꾸(반복성을 강조) → **연신** 눈을 깜박이다.  
 연방(부사): 연속해서 자꾸(연속성을 강조) → **연방** 굶질거리다.

횡하니(부사): 중도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장 빠르게 가는 모양  
 → **횡하니** 밖으로 나가다.  
 횡허게(부사): '횡하니'의 예스러운 표현  
 ※ 예스럽다(형용사): 옛것과 같은 맛이나 멋이 있다.  
 → 장롱이 **예스럽다**.

걸리적거리다(동사): 지름길은 **걸리적거리**는 나무와 풀이 뺨뺨한 산길이었다.  
 꼬적거리다(동사): 수첩에 뭔가를 생각나는 대로 **꼬적거렸다**.  
 두리뭉실하다(형용사): 아이가 얼굴이 **두리뭉실하다**.

새초롬하다(형용사): 조금 쌀쌀맞게 시치미를 떼는 태도가 있다.  
 → 논개의 잔잔한 눈이 **새초롬하게** 미소를 풍겨서 섬월의 얼굴을 싸늘하게 흘린다.

야멸차다(형용사):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사정을 돌볼 마음이 거의 없다.  
 → 채련이만 하더라도 그렇게 **야멸차게** 하는 법이 어디 있나요.

추근거리다(동사): 조금 성가실 정도로 은근히 자꾸 귀찮게 굴다.  
 → 오늘은 바쁘니까 **추근거리지** 말고 너 혼자 가.

2014년

복수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 (5개)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구안괘사 (명사)	구안와사 (명사)
굽실 (부사)	굽신 (부사)
눈두덩 (명사)	눈두덩이 (명사)
삐치다 (동사)	삐지다 (동사)
작장초 (명사) / 식물(괘이밥)	초장초 (명사) / 식물(괘이밥)
※ <b>굽신</b> 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아래 단어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  굽신거리다 (동사) / 굽신대다 (동사) / 굽신하다 (동사) 굽신굽신 (부사) / 굽신굽신하다 (동사)	

별도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 (8개)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개개다 (동사)	개기다 (동사)
꺾다 (동사)	꼬시다 (동사)
장난감 (명사)	놀잇감 (명사)
딴죽 (명사)	딴지 (명사)
사그라지다 (동사)	사그라들다 (동사)
섬뜩 (부사)	섬찝 (부사)
속병 (명사)	속알이 (명사)
허접스럽다 (형용사)	허접하다 (형용사)
※ <b>섬찝</b> 이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아래 단어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됨.  섬찝하다 (형용사) / 섬찝섬찝 (부사) / 섬찝섬찝하다 (형용사)	

개개다(동사):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다.  
 → 비밀 언덕이 따로 있지 능력도 없는 나에게 **개겔** 거야?  
 개기다(동사): 속되게)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  
 → 하라면 할 것이지. 지금 나한테 **개기**는 것이냐?

꺾다(동사): 그럴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끌다. → 그는 돈 많은 과부를 **꺾어** 결혼하였다.  
 꼬시다(동사): '꺾다'의 속되게 이르는 말

딴죽(명사): 이미 동의하거나 약속한 일에 대하여 딴전을 부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딴죽** 치면 어떻게 하니?  
 딴지(명사): 일이 순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것.  
 → 이번 일에 자꾸 **딴지**를 걸지 마라

사그라지다(동사): 삭아서 없어지다. → 불길이 **사그라지다**  
 사그라들다(동사): 삭아서 없어져 가다. → 노여움이 **사그라들기**를 기다렸다.

섬뜩(부사):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 어둠 속에서 퍼런 서슬의 칼날이 **섬뜩** 비쳤다.  
 섬찝(부사):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느낌이 드는 모양.  
 → 싸늘한 적개심을 발견하고 **섬찝** 놀랐다.

허접스럽다(형용사): 허름하고 잡스러운 느낌이 있다.  
 → 아들 녀석이 중학교 입학할 때 기념이랍시고 사 줬던 **허접스러운** 만년필도 잉크를 새로 넣었으며...

허접하다(형용사): **허름하고** 잡스럽다.

2015년

복수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 (4개)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마을 (명사)	마실 (명사)
예쁘다 (형용사)	이쁘다 (형용사)
차지다 (형용사)	찰지다 (형용사)
-고 <b>싫다</b> (보조 형용사)	-고프다('고 싫다' 줄어든 말)

마실(명사)

→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의 의미에 한하여 **표준어**로 인정함.  
 →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의 의미로 쓰인 '마실'은 **비표준어**임.  
 → '마실꾼(명사), 마실방(명사), 마실돌이(명사), 밤마실(명사)'도 **표준어**로 인정함.  
 → 나는 아들의 방문을 열고 이모네 **마실** 갔다 오라고 말했다.

이쁘다(형용사)

→ '이쁘장스럽다(형용사), 이쁘장스레(부사), 이쁘장하다(형용사)'  
 '이쁘디이쁘다(형용사)'도 **표준어**로 인정함.  
 → 어이구, 내 새끼 **이쁘기도** 하지.

차지다(형용사) 반죽이나 밥, 떡 따위가 끈기가 많다. → **차진** 흙  
 찰지다(형용사) '차지다'의 원말.  
 → 화단의 **찰진** 흙에 하얀 꽃잎이 화사하게 떨어져 날리곤 했다.

-고(본동사) + **싫다** (보조 형용사)  
**-고프다** : 사전에서 <'고 **싫다**'가 줄어든 말>로 풀이함.  
 → 그 아이는 엄마가 **보고파** 앙양 울었다.

별도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 (5개)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가오리연 (명사)	꼬리연 (명사)
의논(議論) (명사)	의론(議論) (명사)
이키 (감탄사)	이크 (감탄사)
앞사귀 (명사)	앞새 (명사): 문학적
푸르다 (형용사)	푸르르다 (형용사)

꼬리연(명사): 긴 꼬리를 단 연.  
 →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하늘을 수놓았던 대형 **꼬리연**도 비상을 꿈꾸듯 끊임없이 창공을 향해 날아올랐다.

의론(議論):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의견.  
 의논(議論):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음.  
 → '의론되다(동사), 의론하다(동사)'도 **표준어**로 인정함.  
 → 이러니저러니 **의론**이 분분하다.

이키(감탄사) → **이크**,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 허겁지겁 뛰어갔다.  
 앞새(명사): 나무의 앞사귀. 주로 문학적 표현  
 → **앞새**가 몇 개 남지 않은 나무들이 창문 위로 뻗어올라 있었다.

푸르르다(형용사): '푸르다'를 강조할 때 이르는 말.  
 ※ '푸르르다(형용사)' **'으불규칙용언'**으로 분류함.  
 → 겨우내 찌푸리고 있던 햇빛 하늘이 **푸르르게** 맑아 오고 어디선지도 모르게 흄냄새가 몽글하니 풍겨 오는 듯한 순간 벌써 봄이 온 것을 느낀다.

2015년

복수 표준형 : 현재 표준적인 활용형과 용법이 같은 활용형으로 인정한 것 (2개)

현재 표준형	추가된 표준형
마 / 마라 / 마요	말아 / 말아라 / 말아요
노라네 / 동그라네 / 조그마네	노랑네 / 동그랑네 / 조그망네

[말아 / 말아라 / 말아요]

※ '말다'에 명령형어미 '-아', '-아라', '-아요' 등이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ㄹ'이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함.

- 내가 하는 말 농담으로 듣지 **마 / 말아**.
- 애야, 아무리 바빠도 제사는 잊지 **마라 / 말아라**.
- 아유, 말도 **마요 / 말아요**.

[노랑네 / 동그랑네 / 조그망네]

※ ㅎ불규칙용언이 어미 '-네'와 결합할 때는 어간 끝의 'ㅎ'이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함.

※ '그렇다, 노랑다, 동그랑다, 뿌영다, 어쩔다, 조그망다, 커다랗다' 등등 모든 ㅎ불규칙용언의 활용형에 적용됨.

- 생각보다 훨씬 **노랑네 / 노라네**.
- 이 빵은 **동그랑네 / 동그라네**.
- 건물이 아주 **조그망네 / 조그마네**.

2016년

별도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 (4개)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거방지다 (형용사)	겉판지다 (형용사)
건울음 (명사)	겉울음 (명사)
까다롭다 (형용사)	까탈스럽다 (형용사)
실뭇당이 (명사)	실뭇치 (명사)

겉판지다(형용사)

- ① 매우 푸지다. → 우리 한번 **겉판지게** 놀아 보자.
- ② 동작이나 모양이 크고 어수선하다. → 싸움판은 자못 **겉판져서** 구경거리였다.

거방지다(형용사)

- ① 몸집이 크다. → **거방진** 허우대.
- ② 하는 짓이 점잖고 무개가 있다.
- 덩치 큰 사내가 **거방지게** 사람들을 착 훑어보자 소란스러웠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 ③ =겉판지다(형용사) → **거방지게** 놀다

건울음(명사)

=강울음: 눈물 없이 우는 울음, 억지로 우는 울음

겉울음(명사): 드러내 놓고 우는 울음 / 마음에도 없이 겉으로만 우는 울음

까탈스럽다(형용사)

- ① 조건, 규정 따위가 복잡하고 엄격하여 적응하거나 적용하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가탈스럽다①'보다 센 느낌을 준다.
- **까탈스러운** 공정을 거처다. / 규정을 **까탈스럽게** 정하다.
- ②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러워 맞춰 주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가탈스럽다②'보다 센 느낌을 준다.
- **까탈스러운** 입맛 / 성격이 **까탈스럽다**.
- ※ 같은 계열의 '가탈스럽다'도 **표준어**로 인정함.

복수 표준형 : 현재 표준적인 활용형과 용법이 같은 활용형으로 인정한 것 (2개)

현재 표준형	추가된 표준형
에는	엘랑
주책없다 (형용사)	주책이다 주책(명사) + 이다(서술격 조사)

[엘랑]

- 표준어 규정 제25항에서 '에는'의 비표준형으로 규정해 온 '엘랑'을 **표준형으로 인정함**.
- '엘랑' 외에도 'ㄹ랑'에 조사 또는 어미가 결합한 '**에설랑, 설랑, -고설랑, -어설랑, -질랑**'도 표준형으로 인정함.
- '엘랑, -고설랑' 등은 단순한 조사/어미 결합형이므로 사전 표제어로는 다루지 않음.
- 서울**엘랑** 가지를 마요. / 나를 앞에 앉혀**고설랑** 자기 아들 자랑만 하더라.

[주책이다] 주책(명사) + 이다(서술격 조사)

- 표준어 규정 제25항에 따라 '주책없다'의 비표준형으로 규정해 온 '**주책이다**'를 **표준형으로 인정함**.
- '**주책이다**'는 '**일정한 뜻대가 없이 되는데로 하는 짓**'을 뜻하는 '주책'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은 말로 봄.
- '주책이다'는 **단순한 명사+조사 결합형**이므로 사전 표제어로는 다루지 않음.
- 이제 와서 오래 전에 헤어진 그녀를 떠올리는 나 자신을 보며 '나도 참 **주책이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17년

복수 표준어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 (5개)

현재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꺼림칙하다 (형용사)	꺼림직하다 (형용사)
꺼름칙하다 (형용사)	꺼름직하다 (형용사)
추어올리다 (동사)	추켜올리다 (동사)
치켜세우다 (동사)	추켜세우다 (동사)
추어올리다 (동사)	치켜올리다 (동사)
추켜올리다 (동사)	

꺼림직하다(형용사): 마음에 걸려서 언짢고 싫은 느낌이 있다.  
→ 그가 그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조금 **꺼림직하게** 남았다.

꺼름직하다(형용사): 마음에 걸려서 언짢고 싫은 느낌이 꽤 있다.  
→ 늘 그랬었지만 따라나서기가 **꺼름직하다**.

추켜올리다(동사): 실제보다 과장되게 칭찬하다.  
→ 그 애는 조금만 **추켜올리면** 기고만장해진다.

추켜세우다(동사): 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하다.  
→ 한때는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추켜세운** 적도 있었다.

치켜올리다(동사)  
① 옷이나 물건, 신체 일부 따위를 위로 가뜩하게 올린다.  
→ 바지를 **치켜올리다**.

② 실제보다 과장되게 칭찬하다.  
→ 그 애는 조금만 **치켜올리면** 기고만장해진다.